

체온 활동 유산균 '3배 더'... "장 건강 변화 경험하세요"

인터뷰 | 액티비아 개발팀 풀무원다는

풀무원다는이 자사의 대표 발효유 브랜드 '액티비아(ACTIVIA)'를 한층 진화시킨 기능성 발효유 '액티비아 부스트샷3'를 선보였다. 100ml의 작지만 강력한 이 요거트는 기존 대비 3배 강화된 유산균 함량을 앞세워 장 건강과 배변활동 개선에 특화된 기능성을 강조한다.

제품 개발을 이끈 광정원 브랜드 매니저와 이예리 제품개발팀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단순한 요거트가 아닌, 기능성과 맛, 휴대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장 끝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3배'
'액티비아 부스트샷3'는 브랜드의 핵심 유산균인 비피더스 액티레콜라리스를 30억 CFU(플레인 기준) 담은 고농축 마시는 요거트다. 특히 이 유산균은 체온인 36.5℃에서 가장 활발히 증식하는 특성이 있어 '체온 활동 유산균'으로 불린다.

이 팀장은 "요거트를 만드는 유산균

더 강화된 '액티비아 부스트샷3' 유산균 특성 고려 생산공정 재설계 시음·배합실험 통해 최적의 맛 찾아

무가당으로 가볍게 섭취 가능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적합 제품

대다수가 40대 전후에서 발효되지만, 액티비아 유산균은 사람 체온에 가까운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라기 때문에 장내 생존률이 높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발효 온도부터 생산 공정까지 전면 재설계했으며, 액티비아 고유 유산균을 3배 더 담아내 소비자들의 니즈인 장 건강과 배변활동 개선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산균 함량을 높이면 산미가 강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물리적 현상이다. 이 팀장은 "초기 개발 당시에는 유산균



광정원 브랜드 매니저와 이예리 제품개발팀장이 '액티비아 부스트샷3'를 소개하고 있다.

을 최대한 많이 넣는 방향으로 배합비를 구성했지만, 너무 강한 산미로 인해 제품의 관능 만족도가 떨어졌다"며, "수천 병에 달하는 시음 테스트와 배합 실험을 통해 최적의 맛과 유산균 균형을 찾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부 시음에 사용된 샘플 수는 3000병 이상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관능 평가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부스트샷3는 단순히 배합만 바꾼 것이 아니다. 유산균 유래 산미 억제제를 위해 신규 원료, 신규 공정, 신규 용기를 도입했고, 개발 과정 전반에서 글로벌 다문화와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설탕 뺐지만, 맛 그대로
특히 설탕 무첨가 플레인 제품은 "무가당인데도 깔끔하고 신맛이 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 매니저는 "맛을 유지하면서도 칼로리와 당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실제 소비자 반응도 기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설탕 무첨가 플레인인 한 병당 50kcal, 당 2g, 사과맛은 60kcal로 가볍게 즐길 수 있다.

광 매니저는 "제품 음용 후 효과를 직접 체험했다"며 다시 찾는 고객이 많고, '체온 활동 유산균'이라는 개념도 소비자에게 점차 각인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섭취를 통해 소비자가 장 건강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풀무원다는은 요거트를 통해 내면의 편안함과 입안의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브랜드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광 매니저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요거트이고, 풀무원다는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도 바로 이 분야"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의 제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올리브영, 강릉서 로컬 콘텐츠 선배

140평 규모 '강릉타운점' 열어 강릉 지역 한정판 제품 출시

CJ올리브영이 강릉 대표 전통 상권인 중앙시장 인근에서 약 140평 규모의 복층 매장 '강릉타운점'이 문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강릉타운점은 기존 강릉점과 강릉대학교점을 통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점포로 재탄생했다. 실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입지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강릉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 굿즈'를 선보이기 위한 '지역 특화 구역'이 조성됐다. 라이프스타일 향 브랜드 '라운드어라운드'와 강릉 대표 커



CJ올리브영 '강릉타운점' 전경 /CJ올리브영

피 브랜드 '테라로사'가 협업해 강릉 지역 한정판을 출시한다. 바다 스크럽을 비롯해 커피와 소나무의 향을 담은 배쓰밤, 사체(향기주머니), 룸 스프레이 등 총 6종의 제품을 내놓는다.

강릉타운점은 강원도내 처음이자 비수도권 10번째 타운 매장이다.

올리브영은 지난 2008년 부산대역점을 시작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진출하면서 지역 상권에서 K뷰티를 전파하는 거점 매장을 지속 늘리고 있다.

2020년부터는 전주타운, 광복타운(부산), 천안타운, 대구타운 등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재단장을 단행하는 등 '타운 매장'을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31일~6월 6일 열린 올영세일에서 대전타운과 대구타운은 내국인 기준 전국 매출 1, 2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통 상권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매장 대형화 및 선진화를 추진하고 특색 있는 로컬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JW중외제약, '페린젝트' 소아환자 투여 확대

만 1세 미만 제외 전 연령 사용 가능

JW중외제약은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사진)의 허가사항이 만 1세~13세 환자로 확대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 1세 이상 소아 환자에 대한 용법, 용량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페린젝트는 하루 최대 1000mg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출혈이 발생하는 다양한 수술과 항암요법으로 인한 철 결핍성 빈혈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철분은 체내 산소 운반을 비롯해 면역 기능 강화, 인지 기능, 태아 발달 등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필수 미네랄이다. 철분이 부족할 경



우어지럼증, 피로, 호흡 곤란, 두근거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허가사항 확대에 따라 만 1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페린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허가사항에 따르면 만 1세~13세 소아 대상 1회 최대 투여량은 15ml(철분 750mg) 또는 체중 1kg당 0.3ml(철분 15mg) 이내로 제한된다. 15mL(철분 750mg) 투여는 1주일에 1회까지 가능하다. 총 철분 필요량이 이를 초과할 때에는 첫 투여 후 최소 7일 간격을 두고 추가 투여할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사용 연령 확대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아제약 마그네슘 복합제제 마그랑비 2종 출시

동아제약은 피돌산 마그네슘을 함유한 복합제제인 '마그랑비 피돌렉스 연질캡슐'과 '마그랑비 피돌샷액'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마그랑비 피돌렉스 연질캡슐'은 피돌산 마그네슘, 아스파르트산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등 3종 마그네슘에 비타민 B5종, 비타민E, 감마오리자놀 등을 더했다.

총 10종 성분이 복합 처방돼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등을 완화해 준다.

특히 피돌산 마그네슘과 비타민B1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조성물 관련 국내 특허를 출원해 약물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여덟 번째 ESG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 전략·실천성과 집약

한미약품은 여덟 번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로 '2024-25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부터 실천성과까지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2017년부터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공개해 왔고 2023년 'ESG 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5년부터 신규 적용된 국제 재무 보고기준(IFRS), 유럽 연합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 ESRs) 등 세계적인 ESG 공시 지침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 국제 표준에 따라, E·S·G 영역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이중 중대

성 평가를 도입했다.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외부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5가지 핵심 과제로 사업장 안전 보건 강화, 의약품 안전 보장, 윤리·준법경영 확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등을 선정했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한국표준협회는 "한미약품은 임직원, 고객, 협력사, 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그룹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알레르기 걱정없이 항균 관리"

랩신 '섬유항균제 센서티브' 출시

애경산업은 위생 전문 브랜드 랩신에서 '섬유항균제 센서티브'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다양한 환경에서 예민해진 피부를 고려해 알레르기 관리 기능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알레르기 반응 물질 26종을 배제한 성분으로 설계됐다. 또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엑셀런트 등급을 획득하는 등 제품력을 입증했다.

애경산업은 피부에 직접 닿는 세탁물의 항균과 살균을 동시에 구현하는 제품에 주력해 왔다. 지난 2022년 처음 선

보인 랩신 섬유항균제는 섬유에 남아있는 세균을 99.9% 제거해 항균은 물론 빨래의 귀퉁이 냄새를 제거해 주는 세탁 보조제다. 해당 제품의 전년 대비 매출액은 2023년 29%, 2024년에는 무려 273%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18% 성장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최근에는 위생 관리 영역이 개인 용품에서 생활 용품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깨끗한 섬유 관리를 돕는 '섬유항균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랩신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런드리 새너라이저' 시장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